

 <b>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	<h1>취재 요청서</h1>	
	2016년 6월 8일(수)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조성애(공공운수 정책기획국장) 010-5295-430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구의역 참사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관련,  
 서울시 면담 및 면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오늘 오후 건대입구역에서 시민추모 문화제 개최**

- ◆ 시민대책위 면담 결과 브리핑: 6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 ◆ 시민추모문화제 : 6월 8일 오후 7시 30분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추모행진은 오후 7시 구의역에서 출발하여, 건대입구역 까지 진행 후 문화제 진행)

구의역 참사이후 구성된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면담하여 “노 사 민 정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포함한 요구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유족과 서울 메트로, 서울시는 <노동조합, 서울메트로, 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서울시가 주관하여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합의문 작성이 진행되기 1시간 전인 6월 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과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의회등을 포함한 15명의 구성안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으며,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족과 합의한 진상조사단과는 다른 구성안이며, 서울시가 발표한 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과 합의한 진상조사

단은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중복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과연 서울시가 유족과 합의한 진상조사단을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오늘(6월 8일) 오후 2시 40분 서울시(정무 부시장) 면담을 통해, 유족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진상조사단> 과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확인하고, 면담 이후 면담 결과와 시민대책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청년 노동자 김00의 발인이 6월 9일 오전으로 정해짐에 따라 6월 8일 오후 7시30분 건대입구역에서 시민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시민추모문화제에서는 고인의 친구, 구의역 추모를 이어나갔던 청년, 청소년, 은성psd 지부를 비롯한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유족 합의문
2.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
3. 시민추모 문화제 진행 개요

## 합 의 서

갑 : 유족

을 : 서울메트로

2016. 5. 28.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수리 도중 발생한 사고 (이하 ‘본 사고’ 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서울특별시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1. 본 사고는 을의 인력운영과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음(0.1%도 없음)을 확인한다.
2.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 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진상조사단은 노동조합, 서울메트로, 시민단체(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 참여해 구성한다.
  - 나. 을은 위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다. 을은 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을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해

가. 사고 장소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에 사고 개요 및 추모의 내용을 담은 위령표를 설치한다.

나. 위령표의 문안은 유족과 합의한다.

다. 위령표의 설치시한은 유족의 뜻에 따른다.

라. 본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구의역에 남긴 각종 추모글과 추모물품은 서울특별시에서 장소를 마련해 보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토록 한다.

4. 본 사고와 관련한 보배상 문제는 별도의 부속합의에 따른다. 본 항과 관련해서는 상호비밀을 준수한다.

5. 고인의 동료나 근무자들이 본 사고와 관련한 언론인터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본 사고에 대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본 합의는 기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2016년 6월 7일

갑 : 유족

을 :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 정 수 영

입회인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윤 준 병

[첨부자료 2]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

<p>유족합의 진상조사단 (6월8일 오전 11시 합의문 작성)</p>	<p>서울시 발표 진상규명위원회 (6월8일 오전 10시 발표)</p>
<p>2.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진상조사단은 노동조합, 서울 메트로, 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가 참여해 구성한다 서울 메트로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서울시는 위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권고 내용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p>	<p>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적 관점에서 사고경위와 원인을 밝히고, 대안 마련. 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 시민대표 5명, 노동, 청년, 지하철, 안전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의회 의원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 금주부터 활동 시작하여 7월까지 진상규명 완료,</p>

[첨부자료 3] 시민추모 문화제 진행 개요

구의역 참사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추모 시민문화제  
‘9-4번 승강장’

1부. 청년들의 행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잘못된 구조 청년들이 바꿀게!”

6월 8일(수) 19:00 구의역 9-4번 승강장

2부. 시민추모문화제 ‘9-4번 승강장’

6월 8일(수) 19:30 건국대병원(건대입구역 3번출구)

**프로그램**

사회 : 박철우 (청년 전태일)

\* 구의역에 붙은 시민들의 포스트잇 내용을 100개 정도 정리하여 사회자가 공연 중간 중간에 소개

- 친구 발언
- 시 낭송
- 노래공연
- 청소년 발언
- 은성PSD 지부 발언
- 추모 연주(플룻)
- 청년 발언
- 시민 대책위 발언
- 추모 및 헌화 등